

4차시-‘교사’ 자리 되찾기 - “나는 소통하는 교사야”

- 대화란 무엇일까요?
- 우리는 습관적으로 들으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요.
-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해결책일까요?
-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 이것이 더 좋고 저것은 안좋고 이런것이 그들이 원하는 걸일까요?
-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나이 때 무엇을 원하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었는지?
- 부모님의 말씀보다 선생님의 말씀보다 그 나이 때 학생 시절은 우정과 관계가 무엇인지
-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위해 본능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시기입니다.
- 여러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입니다.
- 그들이 어떻게 찾아 갈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걸어가는지 보아주고 스스로
-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듣기보다 해결책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질문을 받으면
- 바로 해결책을 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학생의 이야기는 뒷전이고 내 머리속의
- 생각만을 계속 따라가며 헤메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와의 대화는 이미 끝이
- 나있고 나만의 이야기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제 판단을 내려놓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시간을 만들어봅시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대화를 어디로 하나요?

귀로 듣고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귀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인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역한 장군 출신 할아버지가 귀가 안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보청기를 끼라고 하고 별다른 증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바가반이라는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귀가 자꾸 안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자는 말합니다.

혹시 집에 손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실 때 아이스크림을 두 개 사들고 가서 손자와 침대 밑에서 몰래 드세요.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귀가 안들리는데 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나 물었습니다.

현자는 빙긋이 웃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해보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두 개 사들고 조용히 들어가 손자와 침대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 몰래 먹고 조용히 그들 만의 비밀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할아버지의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바가반에게 찾아갑니다.

시키는 데로 했더니 귀가 들린다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바가반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었지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지시하며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독단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이런저런 충고를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자 속에서 귀를 닫아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손자와 둘 만의 비밀을 나누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하자 다시 귀는 들리기 시작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들은 답변이라는 이유를 만들어 차단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마음과 소중한 기술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이야기 할 뿐 듣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많은 단어를 구사하고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단어와 문장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올려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벅찬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떨까요?

사랑 :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국어적 정의 입니다만 여러분의 어떤 단어나 생각 혹은 마음 상태가 떠오르시나요?

사랑 : 열정, 따스함, 용서, 무한한것, 변함없는것, 참는것, 헌신하는것, 조건없는것 등등 수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그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것일까요?

조용히 30 초 동안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상대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의 말에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의 말에 호응하거나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에게 주의를 주고 바라보며 듣기에만 집중합니다.

자 이제 같이 연습을 해 볼까요?

여기서는 간단히 하고 다음에 듣기에 관해서는 연습편에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듣기는 상대와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천마디의 현명한 답보다 내 앞에 있는 존재에게 들어주는 것으로 여러분은 학생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짜증내거나 어른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봐서도 안됩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들은 변합니다. 아주 확실히 변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의 달인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세상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듣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 볼까요?

귀를 크게 그리고

가슴은 크게 열고

머리는 작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크게, (눈 주변에는 사랑의 하트를...)

입은 아주 작게.(입에는 자물쇠를 &^^)

상대를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모든 경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저 듣고 또 들으세요.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그저 공간이 되어서 들어주세요.

그들이 가슴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